

2010

2월 21일

제18권 8호 마데테스

영광교회 14년째 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석교회



칼럼 column

● 삶과 생명의 문제 ●

삶은 물질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생각할 수는 없다. 물질이 없이 삶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요소를 마치 생명처럼 여기며 욕망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 평생 물질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

우리 역시 이처럼 물질이 중심이 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눅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전혀 낯설지 않다.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은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며 기뻐하는 그 부자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인생에 대한 욕망이 부자와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기대와 욕망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눅 12:20)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몰랐던 이치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반발의 기운이 꿈틀 거린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신앙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나오는 반발이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외면한 채 무조건 신앙만 요구하고 천국만 불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이 돼 버린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가

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참된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풍부한 물질로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넘치는 재물로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리며 재미있게 산다고 해도 한 달, 일 년, 십년, 지나가면서 결국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된다.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이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죽음을 현실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죽을 것이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이 아니다. 돈에 무관심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에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물질, 즉 돈이 생명이 될 수 있는지는 것이다.

물론 누구든 돈을 필요로 하고,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돈이 생명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 육신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돈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신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불러들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고,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생명이라는 참된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날 설교



제사가 아니라 자비

마 12:1-8

■ 말씀대로 산다는 것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혹 자신의 신자 됨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고 해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궁리하게 되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으려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도 해야 할 집안 일이 있고 일상생활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노동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노동의 범위, 또는 기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물건을 옮길 때 노동에 해당되는 무게와 거리를 정하고,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추수라는 노동에 해당되는 행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남고자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일까요? 오늘날에도 안식일 문제는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기독교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여기고, 그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

12:20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율법을 의미한다면 자비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존재에 더 관심을 두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유대인 됨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말씀을 지켜 실천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가치에 관심을 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존재 가치가 지켜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식일의 의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추수하여 탈곡을 하는 노동의 행위로 간주했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비난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부하 몇 명만 데리고 피신 중에 있었던 사건(삼상21:1-6)입니다. 다윗이 피신 중에 배가 고파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으로써 성막 안 상위에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로운 것으로 진열합니다. 그때 묵은 떡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데 다윗 일행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떡을 먹은 다윗이나 떡을 먹도록 한 제사장의 행위를 두고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되지만 제사장이나 다윗은 그 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는

식으로 배고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묵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예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진설 병을 교체하는 일을 하거나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을 범하는 것이 되지만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어진 상황이나 직책에 따라서 용납되는 일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잣대가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목적과 의미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날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는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자신은 자연히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신자로 평가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복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 2: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안식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애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재앙 아래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어린양의 피가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 안에서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안식은 어린양의 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도 어린양의 피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잊지 않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한다면 안식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제사가 아니라 자비

다윗이 성전 안에서는 율법 주향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조항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조항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함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의가 되어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자비입니다. 신자는 이 자비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 못마땅해 합니다. 실천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하다면서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안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됩니다. 물론 안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안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 31:14-15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옛날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너희와 함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규례에 의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마치

죽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세부조항을 만들어 실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동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해당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주일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일을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는 시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나는 신앙이 있다' 라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죄를 범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도 주일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자비의 세계에 참여됨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그 외에 실천하는 모든 행함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행함이 의가 되고 그 의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의, 즉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가 믿음을 자신의 실천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율법 조항도 메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패어진 것은 자비라는 예수님의 멍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멍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비 안에서 신자는 이미 흠 없는 존재로 세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다만 자비의 세계에 참여된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비의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싶은 마음으로 살 뿐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비밀

골 1:24-29

(9장 1.24일 설교)

인간은 왜 실천과 행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실컷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결론은 항상 실천과 행함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결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했다는 것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복음과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끌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역시 조금이나마 의를 갖춘 정당한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는 안된다. 실천이 있어야 진짜다' 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는 말과 '아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실천이 있어야 한다' 는 말을 비교하면 후자의 말에 마음이 더 끌릴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는 것도 전자의 말보다는 후자의 말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실천과 행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단순히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신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을 알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 것을 외치는 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는 '과연 안다는 것만으로 될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실천이 없으면 그 얇은 진심으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에 의하면 그 생각이 분명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가지고 있는 수준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런 수준의 뜻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의 동정에 대한 정보가 머리에 입력되는 수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26,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누군가가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

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의 말대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도에게 나타났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도만 알 수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알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교회 안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도만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정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도 성경 지식에 대한 수준 차이는 있을지 언정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도 아는 그리스도라면 역시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도가 말하는 앎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 수준의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그 앎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나타난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성도만이 알 수 있다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두 가짜고 잘못된 정보고 지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예수 안에서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인간의 실천과 행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천과 행함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개선에 전혀 효과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앎에 의해서 신자는 자신의 행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서 의의 복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앎을 두고도 ‘아는 것으로 안된다 실천해야 한다’ 는 말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아

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실천해야 한다’ 는 주장에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으로 실천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엄청난 지진의 피해를 입은 아이티의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앎으로 가능합니다. 여호와가 왜 선하시면 인자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감사는 자연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앎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런 열매입니다. 아이티의 국민이 겪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들에게 함께 하고 있음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자에게 실천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신자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앎으로는 넘어진 상태에서의 감사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넘어져 아픔이 있으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앎의 역사고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는 것을 신자의 실천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신자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의 실천과 행함을 믿음에 더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신자로 서고자 합니다. 때문에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말하고 절기를 말하는 것은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고, 거룩한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히 거룩해진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주장 아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있을까요? 피의 은혜는 다만 형식적인 것으로만 존재할 뿐 칭송 받는 것은 인간의 실천과 행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십자가의 용서도 말하지만, 결국 인정되고 칭송 받는 것은 인간의 실천이고 행함인 것이 지금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습니다. 사도의 이 복음은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신자가 불안해 할 것은 없습니다. 신자의 실천과 행함이 부족해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는 일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미심쩍어 하는 것은 안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자는 삶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신자를 다스리며 항상 믿음의 길에서 진리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사 고통과 아픔의 일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의 정보가 입력된 수준으로 여기면 안됩니다. 그러한 지식에 의해 나올 것은 실천과 행함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믿는 삶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잘못된 신에 대한 지식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삶은 우리가 습득해서 채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지혜가 곧 삶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신자에게는 능력이고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향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함이 신자가 누릴 복임을 알고 그 복에 마음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수요일 설교



동행 암 3:1-8

(5강 2.3일 설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인생을 차이 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끝이 어딘가로 인해서 인생은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도받을 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일에 관심을 둔 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충돌입니다. 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헛된 현실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바램은 세상이란 현실에서 누리는 부요와 기쁨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뜻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으로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행은 나와 함께 동행할 대상에 대해 알고, 동행할 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한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나타남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밋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밋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뭔가 움킨 것이 있고, 잡은 것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선지자의 나타남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문제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선지자라 이름하는 모든 자들이 엉터리였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선지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12,13절을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벰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에게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벰엘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나 가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 위에 바로 선 이스라엘보다는 평안한 이스라엘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교회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교회보다는 평안하고 성장해가는 교회되기를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뜻에 동행하는 교회보다는 인간의 뜻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러한 인간의 뜻을 돕는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동행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과 동행하면서 인간의 뜻이 성취하도록 돕고 힘을 두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만 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 다. 그런데 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만 특별히 아셨다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더욱 돕고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참된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별된 자리로 부름 받았고 구별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만 육신으로 사는 길로만 달려가지만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길로 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무시를 받는 낮은 자리에 처해 진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의해 인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잘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인도하기로 계획한 곳은 정해져 있고, 신자와 신자 아닌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현실에 미리 앞당겨 생각해 본다면 성공한 자로 부요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살아있는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7장에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로 부릅니다. 그때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뿔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인 아마샤가 자신을 선견자로 불러준다면 어쨌든 기본 좋을 일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을 선지자가 아닌 목자로 소개합니다. 즉 아모스에게 직책이나 지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외침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신자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었구나’ 라는 자신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나의 실상을 알게 된 그것이 깊은 탄식이 되어서 나와야 하고 탄식과 함께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예수님이야말로 떠날 수 없고 멀어질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살고 못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이 동행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목사

묵상기도 | 다 암 께
사도신경 | 다 암 께
찬 송 | 15장(통55)
교 독 문 | 82(빌2)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80장(통424)
성경봉독 | 마 12:1-8
설교제목 | 계사보다 재비 (77장)
기 도 | 설 교 짜
찬 송 | 292장(통415)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통2)
축 도 | 설 교 짜

다음주기도 : 이영의 장로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목사

사도신경
찬 송
기 도
찬 송
성경봉독
설교제목
기 도
찬 송
주기도문

다음주기도 : 안옥섭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목사

아모스 강해(8강)

가야 할 길이 있어

신윤식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지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아랫물 흐르면
윗물도 따라 흘러
물은 한줄기 강을 이루고
유유히 흘러만 간다

생각이 많아서인가?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른 이유가 뭘까

봄이 찾아오는 듯
낮의 햇살은
따뜻함을 품고 다가오는데
나그네 발길은
바람에 시리다

시려도
시려도
가야 할 길이 있어
오늘도 난
운동화 끈을 맨다

교회소식

1. 오늘 오후예배는 동대구교회당에서 대구지역 재건교회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시간은 2:30분입니다.
2. 다음 주일은 이태현 목사님을 모시고 일일 사경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